

2022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4차 회의록

■ 회의일시: 2022. 11. 3.(목) 14:00

※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

■ 출석위원: 김종대(분과위원장), 배영동, 석대권, 이순녀, 전경욱
천혜숙, 혜일(이승우), 황경숙(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윗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부분공개

심 의 사 항

1. ‘웃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웃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계획에 따라 ‘웃놀이’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21.5~11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1.1.26.)
- ‘웃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1.5.17.~11.12.)
- 2022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3차 회의 검토(‘22.9.2.)
- ‘웃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22.9.26.)
- ‘웃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의견 수렴(‘22.9.26.~10.25.)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1.5~11월
- 조사기관: (사)한국민속학회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 양편으로 나뉘어 웃가락 4개를 던져,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라 말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운(運) 놀이 형태인 ‘웃놀이’를 지정함.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윷놀이는 전통사회에서 정초(正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와해되어 가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놀이문화임.
- 윷놀이는 역사 문헌에서 ‘사회(柶戲)’·‘척사(擲柶)’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관련 내용을 관찬 사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대부 문집(文集)에서까지 상세하게 찾을 수 있음.
- 윷놀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놀이로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천문관을 바탕으로 음과 양, 천체의 28수 등 형식의 완결성도 지니고 있음. 또한 놀이의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윷놀이와 유사 판놀이(board game)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놀이도구, 놀이판, 놀이 진행방식이 매우 독특함.
- 윷놀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음. 또한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편중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승됨. 굳이 의식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윷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음. 특정 단체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 폐쇄적으로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승에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개방되어 있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윷놀이가 자리매김하고 있음.
- 윷가락의 다양한 지역적 분포, 윷판의 다양한 형태, 놀이방법의 변형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놀이로 파악됨. 또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게임화 등은 달라진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물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파악됨.
- 전승주체가 불특정 온 국민 전체로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전승 활성화가 가능한 놀이임. 윷놀이 자체가 지닌 요인으로 운(運)에 기대는 윷놀이라는 특징, 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낫수를 운용하는 가변성의 특징, 직관적 놀이 구성이어서 배우기 쉬운 특성, 주변 상황에 맞게 열린 놀이의 특성 등이 미래에도 윷놀이를 지속 가능한 문화로 그 전승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함.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웃놀이’는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 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종목만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1.1.26.) 시 검토되었던 ‘웃놀이’를 종목 명칭으로 제안함.

(4) 지정 예고 기간(‘22.9.26.~10.25.) 의견 제출 현황

- 이의제기 등 특이사항 없음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웃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마. 심의내용: ‘웃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바. 의결사항

- 가결(출석 8명, 가결 8명)
 - ‘웃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